경기 성남시가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993억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추경 예산안이 다음달 3일부터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293회 제1차 정례회'를 통과하면 올해 성남시의 총예산 규모는 3조7120억원에서 4조113억원으로 8.1% 늘게 된다.이번 추경 예산이 쓰일 곳과 사업비는 △성남하이테크밸리 청년친화형 아름다운 거리 조성 공사 35억원 △성남형 자율주행 기반 모빌리티 플랫폼 구축·운영 30억원 △구미동 하수처리장 부지에 다목적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7억원 △백현마이스역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원 △시민을 위한 명품탄천 조성 공사 14억원 등이다.맞춤형 복지 지원사업인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월 3만원 인상분(10만→13만원) 13억원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연간 최대 23만원 지급 인원 증가분(3만9000여명→5만4000여명) 29억원 △환경지킴이 사업 참여자 실비보상금 월 2만원 인상분(27만→29만원) 1억9000만원 △해님달님놀이터 확충(3곳→7곳)에 따른 운영 지원 증액분 6억5000만원도 반영했다. 이외에도 어린이집 혁신 프로그램 지원비 2억원, 저상버스 이용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사업 시스템 구축·운영비 4억6300만원, 이동 노동자 간이 쉼터 2곳 추가 설치·운영비 1억7000만원 등을 포함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평가 최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확보한 특별교부세(1억원)와 국·도비 보조금(528억원), 순세계잉여금(1426억원)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민선 8기 공약사업과 주요 현안, 시민 맞춤형 복지에 이번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면서 "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7일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시민을 위한 시책 사업을 신속 집행·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청 전경./사진제공=성남시